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2월 3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5장 23절-27절

설교제목 : “크게 위엄을 갖추고”

우리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2014년에 흥행한 **킹스맨**이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해리가 한 유명한 대사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14세기경 영국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교육자이었던 **위컴의 윌리엄(William of Wykeham)**이 남긴 말입니다. 위컴의 윌리엄이 말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에서 매너는 단순한 예의 범절만을 가리키지 않고, **온전한 인간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위컴의 윌리엄이 말했던 인간됨이란 그가 신학자이었기에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인간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인간됨이란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했고,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베스도의 부임인사차 방문하게 되었고, 베스도는 유대의 사정에 능통한 아그립바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문을 구합니다. 총독 베스도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그립바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진술을 들어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이튿날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23절) 청문회가 열리자, 아그립바와 왕과 왕비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라에는 5개 연대가 주둔하였기에, 다섯 명의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인, 시의회 의원과 총독의 고문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이 참석하자 베스도가 명하여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이 오자, 베스도 총독은 청문회를 열게 되어진 이유를 밝힙니다.(24-27절) 청문회가 소집된 이유는, 바울 상소건과 관련해서 로마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바울에 대하여 특별히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소할 자료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는 반드시 명백한 죄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스도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면 틀림없이 로마황제로부터 무능력한 관료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정치적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베스도 개인의 위신과 총독으로써의 행정 능력과도 결부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청문회 형식을 빌어 아그립바 왕 앞에 바울을 내보임으로써 그가 바울에게서 합당한 죄목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할 모습이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봅시다. 23절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의미는 그들의 위치에 걸맞는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호화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아그립바 왕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왕관을 머리에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 버니게도, 자신의 위엄을 잘 보여주는 왕복과 왕관으로 자신을 치장했을 것입니다. 한편, 그 자리에는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전승에 따르면, 키가 작고, 대머리에, 눈썹은 짙고, 코는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바울은 왜소한 몸골과 보잘 것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그립바와 버니게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신앙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누구의 인생이 더 품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분명하게 바울일 것입니다.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집착하는 출세 지향적 인간들일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위치를 자신의 위엄과 품격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외형적인 치장을 했다고 한들 그들의 위엄은 한낱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의 외모와 위치는 한없이 초라했지만, 바울의 위엄은 영원할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됨의 진정한 위엄과 품격을 세워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리가 가진 지위와 돈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답게 사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향하고 목표하는 방향을 바꾸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위엄과 품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잘못된 가치를 바꾸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자리나 위치를 통해 혹은 가진 돈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보다는 내가 받는 평판, 내가 받는 오해, 내가 받은 상처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이기심과 현세적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리가 가진 지위와 명성과 돈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리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답게 사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은 예수님을 만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베스도 총독이 청문회를 연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이야기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